

“영화를 정복하라!”

10 월 혁명과 소련 혁명영화의 영향을 받았던 독일 영화

독일에서 영화가 막 성장하던 시절, 독일 영화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 차 세계대전이었다. 20 세기 초 인기를 끌기 시작한 연례시장의 이 불거리는 수입 외국영화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영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국가기관들은 영화가 정치선전 및 심리전에 쓰일 수 있는 가치를 알아보았고, 중견 영화제작사들은 1917 년 도이체방크의 주도 아래 결국 거대 기업으로 합병되었는데, 이 영화사가 바로 1920 년대에 시장을 지배한 UFA 이다. UFA 는 상업적인 견지에 따라 현실도피적인 오락거리로서 영화를 만들었고, 사회 현실과 정치적 논쟁, 그리고 전후 시대의 사회적 모순으로부터는 눈을 돌렸다. 인상적인 것은 대규모 영화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의 결말이다.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하층계급의 봉기를 그린 이 영화는 파괴의 혼돈, 그리고 노동자 대표와 기업주 아들 간의 화해 속에 끝을 맺는다.

아이러니하게도 UFA 의 설립과 동시에 일어난 러시아 10 월 혁명의 지도부 역시 영화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레닌의 측근이자 1920 년대 소련 공산당 정치국의 일원이었던 그리고리 예브세예비치 지노비예프(Grigori Jewesejewitsch Sinowjew)는 “부르주아지 소유의 영화는 민중을 기만하고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 손 안에서 영화는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능한 많은 노동자를 계몽하기 위한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혁명 전에 영화계를 이끌던 핵심인물들이 서방으로 도피해 프랑스 영화계에 터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던 후 소련 영화가 발전하는 데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혁명영화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Sergej Eisenstein)이었다. 에이젠슈테인은 어트랙션 몽타주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미학이론을 탄생시켰고, <전함 포템킨(PANZERKREUZER POTESMINKIN)>이나 <10 월(OKTOBER)> 같은 영화들은 소련 밖에서도 큰 관심을 얻었다.

독일에서 <전함 포템킨>은 독일공산당과 가까웠던 프로메테우스 필름이 배급했다. 프로메테우스 필름을 이끌었던 출판업자 빌리 뮌츠베르크(Willi Münzberg)는 그의 “신독일 출판사(Neues Deutsches Verlag)”에서 발행된 한 출판물을 통해 1925 년에 이미 “영화를 정복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1923 년부터 독일에서는 정치적 사건과 공산주의적 활동을 기록하는 단편영화들이 만들어졌다. 프로메테우스는 러시아 영화들을 배급해 회사의 자금을 마련했고 독일과 러시아 영화계 사이의

관계를 관리했으며, 자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한편 독일과 소련의 합작영화 제작에도 참여했다. <전함 포템킨>은 그 견인차 같은 영화였다. 일시적으로 상영이 금지되고 검열에서 편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혁신적인 예술작품으로 받아들여지며 전국의 주요 극장에서 상영되었다. 여기에는 특히 영화에 맞춰 만들어진 아방가르드한 오케스트라 음악도 한 몫을 했다. 피스카토어 연극에 참여했었던 에드문트 마이젤(Edmund Meisel)의 작품으로 에이젠슈타인(Eisenstein)은 이 음악이 영화의 배경으로 연주되도록 했다. 10 월 혁명 10 주년을 맞아 제작된 에이젠슈타인의 다음 작품 <10 월(OKTOBER)>에서도 마이젤이 다시 음악을 맡았다. <10 월>은 <포템킨>에서 실험된 몽타주 기법 및 영상과 음향의 관계를 이어갔다. 독일에서는 이 영화가 <세상을 흔든 열흘(10 TAGE, DIE DIE WELT ERSCHÜTTERTEN)>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다.

<크라우젠 부인의 행복여행(MUTTER KRAUSENS FAHRT INS GLÜCK)>은 프로메테우스의 작품 중 가장 손이 많이 간 독일 영화였고, 포템킨처럼 상당한 성공을 거두며 시민계급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이 영화를 감독한 필 유치(Piel Jutzi)는 프로메테우스의 직원으로서 이미 에이젠슈타인 영화들의 독일 버전을 작업한 바 있었다. 유치는 실제 베를린의 어느 한 노동자 구역 곳곳에서 아마추어 및 좌파 연극에서 훈련 받은 배우들과 함께 이 영화를 찍었고, 이로써 영화는 비범한 진정성과 높은 기록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탄생했다. 유성영화가 만들어진 것은 최초의 무성영화들이 베를린의 극장들에서 상영되고 있던 1929 년이었다. 하지만 유성영화 제작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큰 투자비용을 프로메테우스 필름은 조달할 수 없었고,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와 한스 아이슬러(Hanns Eisler)를 참여시킨 첫 유성영화 <쿨레 밤페(KUHLE WAMPE)>의 제작 준비 도중 파산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미 에이젠슈타인 영화 한 편에 제작비를 댄 바 있던 스위스 제작사 프레젠스 필름(Präsenz-Film)이 나서서 이 “처음이자 마지막 공산주의 영화”(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Siegfried Kracauer)를 완성했다.

1933 년 1 월 30 일, 나치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자 러시아의 혁명영화들과 독일에서 제작된 몇 안 되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영화들이 첫 금지작이 되었다. 네거티브들이 파괴되었고 영화에 참여한 대다수는 망명 길에 올라야 했다. 나치의 영화산업을 어용화하고 통제한 요제프 괴벨스(Joseph Goebbels)는 “소재의 형성을 통해” 국가사회주의가 표현되는 독일식 포템킨을 원했다.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직후 제작에 들어간 <히틀러 소년단원 크벡스(HITLERJUNGE QUEx)>가 바로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의 영화였던 <포템킨>의 토포스와 양식적 수단들을 차용하고 모방하면서도 이 영화는 <포템킨>의 계몽적이면서 생의

의지가 각인된 단초를 쿵쿵대는 행진음악이 곁들여진 숨막히는 국가주의 정치선전 문구로 바꾸어 버렸다. “우리의 깃발이 펄럭이며 우리를 이끈다, 우리의 깃발이 바로 새 시대이다. 그리고 깃발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한다! 그렇다, 깃발은 죽음보다 크다!” 1940년대까지 “청소년영화의 시간(Jugendfilmstunden)”에 상영되었던 이 “독일 청소년의 희생정신을 기린 영화”가 이미 죽음을 찬미하고 “제 3 제국”의 영웅적인 몰락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오늘날 보면 놀랍다. “우리 독일인들은 사는 법은 잘 모르지 모르나 죽음, 그것에는 탁월하다”. 같은 해 제작된 어느 다른 영화의 한 대화장면에 등장하는 대사이다. 괴벨스는 이 말을 인정하며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 넣었다.

슈테판 드뢰슬러(Stefan Drößler)

신경(NERVEN) – 독일 1919년 – 감독: 로베르트 라이너트(Robert Reinert) – 시나리오: 로베르트 라이너트 – 촬영: 헬마 레르스키(Helmar Lerski) – 음악: 요아힘 베렌츠(Joachim Bärenz) – 에두아르트 폰 빈터슈타인(Eduard von Winterstein), 리아 보레(Lia Borré), 에르나 모레나(Erna Morena), 파울 벤더(Paul Bender), 릴리 도미니치(Lili Dominici), 리오 엘본(Rio Ellbon) 출연 – 110분, 블루레이 – 1919년 제작된 이 “기념비적 영화” <신경>에서 로베르트 라이너트는 “전쟁과 곤궁이 인간 안에 생성한 기폭제”를 “사람들을 덮쳐 온갖 행위와 죄로 몰아가는” “신경성 전염병”으로 묘사한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광기와 혁명, 절망과 새 출발 사이에서 겪는 운명들이 그려진다. 영화는 표현주의적 망상들을 세계대전의 경험 및 전후 시대의 혼돈과 연결짓지만, 현상의 묘사를 넘어서지는 않으며 자연으로의 도피라는 비정치적 해결책을 권한다.

복사본 출처: 뮌헨 영화박물관(Filmmuseum München)

전함 포템킨(BRONENOSEC POTEMKIN / PANZERKREUZER POTEMKIN) –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1925년 – 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Sergej Eisenstein) – 시나리오: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 니나 아가자노바-슈트코(Nina Agadshanova-Shutko) – 촬영: 에두아르트 티세(Eduard Tissé) – 음악: 얀 브라우어(Jan Brauer) – 알렉산드르 안토노프(Aleksandr Antonov), 블라디미르 바스키(Vladimir Barskij), 그리고리 알렉산드로프(Grigorij Aleksandrov) 출연 – 75분, dcp – 1905년 6월 14일 오데사 항구 앞의 러시아 황제의 군함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의 20주년에 만들어진 에이젠슈테인의 이 영화는 비극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5개 단락에 걸쳐 서술한다. 에드문트 마이젤의 리드미컬한 오케스트라 소음음악이

결들여진 에이젠슈테인의 혁신적인 몽타주 시퀀스들은 소비에트의 시각에서 본 러시아의 사건들이 전달하는 “혁명영화”의 한 미학을 창조했다. 도처에서 “위험한” 영향을 주는 영화로 분류되는가 하면 금지와 검열을 받고 있다고 여겨졌음에도 영화는 전세계적으로 찬사를 이끌어냈다. 1958년 브뤼셀에서는 전세계 영화평론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역대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기도 했다.

복사본 출처: 독일 시네마테크(Deutsche Kinemathek)

직조공들(DIE WEBER) – 독일, 1927년 – 감독: 프리드리히 켈니크(Friedrich Zelnik) – 시나리오: 파니 카를젠(Fanny Carlsen), 빌리 하스(Willy Haas) – 촬영: 프레데릭 푸글상(Frederik Fuglsang), 프리드리히 바인만(Friedrich Weinmann) – 음악: 요하네스 칼리츠키(Johannes Kalitzke) – 파울 베게너(Paul Wegener), 테오도르 루스(Theodor Loos), 빌헬름 디테를레(Wilhelm Dieterle), 아르투르 크라우스넥(Arthur Kraußneck), 다그니 세르베스(Dagny Servaes), 발레스카 슈톡(Valeska Stock) 출연 – 93분, dcp – 자사의 영화로 <전함 포템킨>의 대성공을 뒤따라 보려는 UFA의 시도에는 창작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게르하르트 하우스프트만의 희곡이 사용되었다. 자연주의적 문학으로 191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솔레지엔의 직조공들이 비참한 노동환경과 열악한 임금에 대항하여 봉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련한 연출가 켈니크는 소비에트 영화의 양식적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현실적 관련성을 회피하며 봉기의 혼란과 폭력성을 강조한다. 영화의 표현주의적 부제들은 게오르게 그로스(George Grosz)가 그린 것으로 그로스는 영화의 시각적 구성에도 참여했다.

복사본 출처: 프리드리히-빌헬름-무르나우-재단(Friedrich-Wilhelm-Murnau-Stiftung)

10월(OKTJABR / ZEHN TAGE, DIE DIE WELT ERSCHÜTTERTEN) –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1927년 – 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Sergej Eisenstein) – 시나리오: 그리고리 알렉산드로프(Grigorij Aleksandrov),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 – 촬영: 에두아르드 티세(Eduard Tissé) – 음악: 에드문트 마이젤(Edmund Meisel) – 니콜라이 포포프(Nikolaj Popov), 바실리 니칸드로프(Vasilij Nikandrov), 보리스 리바노프(Boris Livanov), 니콜라이 포드보이스키(Nikolaj Podvoiskij) 출연 – 116분, dcp –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은 10월 혁명 기념일을 맞아 제작한 이 작품을 무척 집중적으로 작업한 나머지, 예정일을 5개월 넘겨서야 영화가 상영될 수 있었다. 일련의 사건들을 다룬 이 연대기에서는 <전함 포템킨>에 사용되었던 모든 미학적 원리들이 극단에 달한다. 영화는 시각적 틈입과 연상적 몽타주의 폭죽을 끊임 없이 터뜨리고, 99인의 오케스트라가 동원되는 에드문트 마이젤의 동류의 음악으로 역동적으로 뒷받침되며 극으로 치닫는 리듬도 이에 한 몫을 더한다. 복원된

원본에서는 영화 완성 전 배척된 레프 트로츠키(Leo Trotzki)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후에 소비에트의 검열에서 삭제되었던 장면들도 다시 볼 수 있다.

복사본 출처: 뮌헨 영화박물관

크라우젠 부인의 행복여행(MUTTER KRAUSENS FAHRT INS GLÜCK) – 독일, 1929 년 – 감독: 필 유치(Piel Jutzi) – 시나리오: 빌리 뢰(Willy Döll), 얀 페트케(Jan Fethke), 프로메테우스-콜렉티브(Prometheus-Kollektiv) – 촬영: 필 유치 – 음악: 요아힘 베렌츠(Joachim Bärenz) – 알렉산드라 슈미트(Alexandra Schmidt), 홀메스 짐머만(Holmes Zimmermann), 일제 트라우솔트(Ilse Trauschold), 프리드리히 그나스(Friedrich Gnaß, 게르하르트 비너트(Gerhard Bienert), 베라 사하로바(Vera Sacharowa) 출연 – 133 분, dcp – 베를린 어느 노동자 구역의 일상. 크라우젠 부인의 좁은 아파트에는 여섯 명이 살고 있다. 일용직, 매춘, 좀도둑질 등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유치의 카메라는 독일의 극영화에서 그때까지 보여준 적 없던 집요하고 기록영화적인 장면과 상황들을 담아낸다. 영화는 이 같은 베를린의 풍경을 그림에 담았던 화가 하인리히 칠레(Heinrich Zille)에게 헌정되었고, 정치적으로 적극 활동했던 예술가 케테 콜비츠(Käthe Kollwitz), 한스 발루쉐크(Hans Baluschek), 오토 나겔(Otto Nagel)의 비호와 참여 아래 완성되었다.

복사본 출처: 뮌헨 영화박물관(Filmmuseum München)

시간의 문제들. 노동자가 사는 모습(ZEITPROBLEME. WIE DER ARBEITER WOHNT) – 독일, 1930 년 – 감독: 슬라탄 두도브(Slatan Dudow) – 참여: 필 유치(Piel Jutzi) – 촬영: 발터 리히(Walter Hrich) – 12 분, 35mm – 베를린의 노동자와 유산자들이 살아가는 서로 다른 생활환경을 그려내는 선동적 다큐멘터리 영화. 한 실업 가정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쿨레 밤페, 혹은 세상은 누구의 것인가?(KUHLE WAMPE ODER WEM GEHÖRT DIE WELT?) – 독일, 1932 년 – 감독: 슬라탄 두도브(Slatan Dudow) – 시나리오: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슬라탄 두도브 – 촬영: 귄터 크람프(Günther Krampf) – 음악: 한스 아이슬러(Hanns Eisler) – 헤르타 티레(Hertha Thiele), 에른스트 부쉬(Ernst Busch), 마르타 볼터(Martha Wolter), 아돌프 피셔(Adolf Fischer), 릴리 쉐보른(Lilli Schoenborn), 막스 사블로츠키(Max Sablotzki) 출연 – 76 분, 35mm – 베를린의 어느 궁핍한 노동자 가족이 베를린 성문 앞의 한 천막촌으로 들어간다. 영화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환경에 대한 숙명론적 묘사에 맞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고, 이로써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Siegfried Kracauer)에게 이 영화는 “공개적으로 공산주의적 입장을 취한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가 되었다.

복사본 출처: 독일 시네마테크

히틀러 소년단원 크벡스(HITLERJUNGE QUEX) – 독일, 1933 년 – 감독: 한스 슈타인호프(Hans Steinhoff) – 시나리오: 카를 알로이스 쉐칭어(Karl Aloys Schenzinger), 보비 E. 뤼트케(Bobby E. Lüthge) – 촬영: 콘스탄틴 트셋(Konstantin Tschet) – 음악: 한스-오토 보르크만(Hans-Otto Borgmann) – 위르겐 올젠(Jürgen Ohlsen), 하인리히 게오르게(Heinrich George), 베르타 드레브스(Berta Drews), 클라우스 클라우젠(Claus Clausen), 헤르만 슈펠만스(Hermann Speelmans), 로트라우트 리히터(Rotraud Richter) 출연 – 95 분, 35mm – 공산주의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히틀러 소년단에 가입하려는 소년 하이니 필커의 이야기. 영화는 영리하게 바이마르 공화국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영화의 장면들을 차용하면서도 이를 재해석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인터내셔널(Die Internationale)과 국가사회주의자에 관한 국가주의적 목표들의 재숙고가 서로 대비된다. 나치 정치선전물의 첫 작품인 이 영화에서 목숨의 희생은 이미 영웅적인 행위로 미화되고 있다. 그리고 뒤이은 많은 파시즘 영화들이 국민을 전쟁(과 몰락)으로 인한 궁핍에 대해 준비시키기 위해 이러한 희생을 기념적으로 그려내게 된다.

복사본 출처: 프리드리히-빌헬름-무르나우-재단(Friedrich-Wilhelm-Murnau-Stiftung)